

한양대학교 2015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인문계

모의논술

수험번호 () 성명 ()

[문제]

<가>와 <나>의 글 및 <다> 그림과 글의 내용을 논거로 삼아, 다음 명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1,000자,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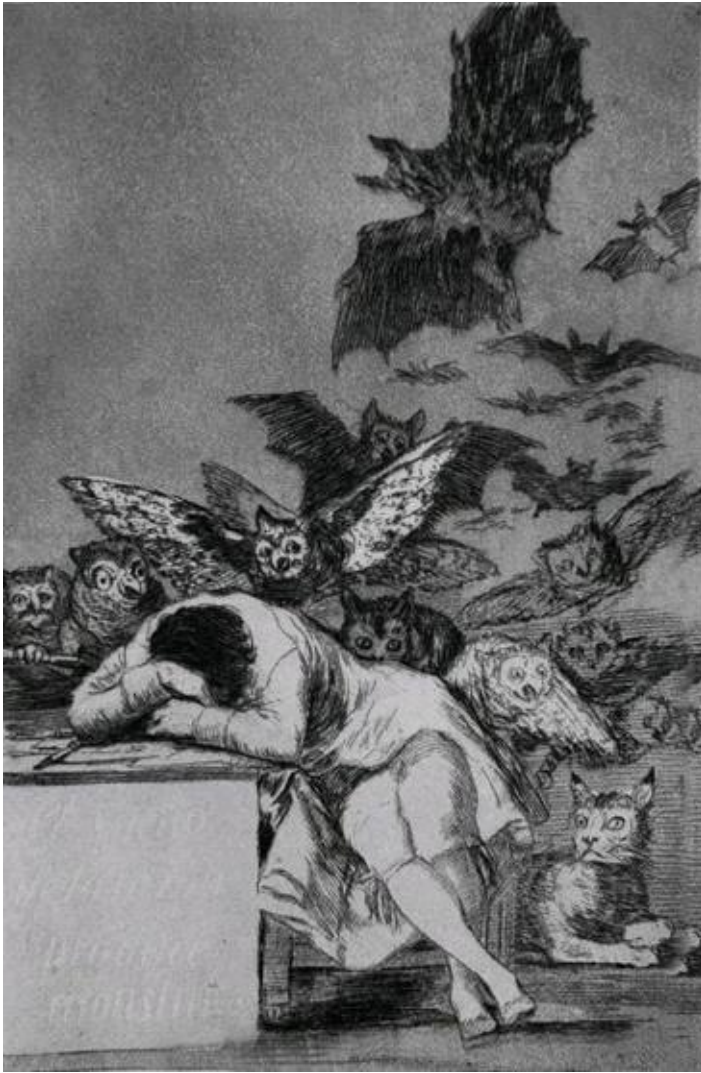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다.

<가>

푸코는 진리와 지식을 인식이 아닌 권력의 산물로 본다. 그리고 각 시대의 지배적 담론은 다른 담론과의 불일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가능성 및 그 사고의 표현을 '구성'한다고 본다. '구성'한다는 것은, 진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푸코에게 언어적 구성물인 텍스트는 개인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지배 담론과 저항 담론의 권력이 충돌하고 교섭한 결과물로 간주된다. 이런 문제의식은 무수한 과거의 사실들을 해석하고 구성하여 역사적 진실로 만드는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무수한 사료 가운데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더 진실에 가깝다고 널리 인정된다는 것은, 그 역사적 진실을 구성한 역사가들이 비판자들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독일의 여성 작가 루이제 린저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반국가주의 사상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다. 사형수였던 그녀는 이듬해 나치독일이 연합군에 패배하면서 극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녀는 감옥에서 비인간적인 처우를 견뎌내며 몰래 일기를 써서 감추었다. 뒷날 그녀는 이 옥중일기의 출간을 계획하지 않았다. 어두운 과거는 그냥 조용히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기차 여행 도중 사람들과 우연히 히틀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2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잔혹한 역사를 이미 잊고 있거나 거기에 무관심했으며, 심지어 히틀러를 옹호하기까지 했다. 크게 충격 받은 린저는 일기를 모아 『옥중기』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서문에서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미래란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거라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과거란 현재 속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며, 현재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악의 범죄를 은폐하고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향해, ‘아름다운 영혼의 세계’로만 도피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며, 인간의 기억으로부터 억지로 추방된 것은 언젠가는 다시 강한 힘을 가지고 새로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프란시스코 고야(1746~1828),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

고야는 화실에서 잠든 자신을 상상한다. 잠에 취해서 그의 이성은 무너지고 어둠 속을 배회하는 괴물같은 날짐승들에 의해 미혹되어 버렸다. 이 작품에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올빼미들과 무지를 상징하는 박쥐들이 그려져 있다. 고야가 그린 이 악몽에는 그가 살았던 스페인 사회를 보는 그의 안목이 스며들어 있다.